



밤의 철학

별빛이 쏟아진다
나는 묻는다 —
저 빛이 대체인가
내 눈이 대체인가
고요한 하늘아래
이성은 잠해 멈추고
마음만이 흐른다.

GDU 101 고전 문화예술 공모전 작품 소개

고전 도서명

순수 이성 비판 <임마누엘 칸트>

작품 설명

이 시화는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을 바탕으로 인간 이성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한계를 밤 하늘 속 별빛에 비유해 표현했다.

밤하늘 아래에서 조용히 이성의 한계를 성찰하는 느낌, 별빛 아래 펼쳐지는 존재와 인식의 경계를 떠올리게 한다.

달, 새, 건물 실루엣이 배치되어 있고 새들이 전선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이 사색적인 정서를 더해준다.